KVCA MONTHLY MAGAZINE vol.147

VC Discovery



이달의 VC人 Zoom-In
아주IB투자 정대석 본부장

법·제도 Q&A
창업기획자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설립 제한

9
2020 SEPTEMBER

KVCA 한국벤처캐피탈협회
KOREAN VENTURE CAPITAL ASSOCIATION



청춘,
열정을 말한다

청춘은 열정의 다른 이름이다.
깨지고 일어나고, 다시 도전하는 열정,
그것은 젊음의 상징이기도 하다.

젊음에는 열정이 숨어 있다.
생동감 넘치는 열정과
새로움에 대한 도전
그것은 젊음의 특권이기도 하다.

푸른 녹음과 강렬한 햇빛속에는
희망과 열정이 녹아 있다.

도전하고 부딪치는 삶 속에
청춘이 있는 것이다.
안주하는 삶 속에는 희망이 없다.

청춘을 깨우는 열정
그것은 도전이다.
새로운 삶을 향한
위대한 도전에는 열정이 숨어 있다.

VC Discovery
KVCA MONTHLY MAGAZINE
2020 SEPTEMBER | Vol.147

CONTENTS

Market Trend
04 주요 LP 출자 계획

Investment Insight
05 이달의 VC人 Zoom-In
아주IB투자 정대석 본부장

09 법·제도 Q&A
창업기획자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설립 제한

With Startup
13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운영 현황
투자 협력·M&A 지원센터

KVCA & Members
18 KVCA 소식
• 김형영 신임 상근부회장 취임식 개최
• 4차 산업혁명 벤처투자협의회 제7차 회의 개최

20 회원사 소식

24 연수원 소식

26 Epilogue









발행일 2020년 9월 15일(통권 147호 9월) | **발행·편집인** 정성인 | **발행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빌딩 2층)
전화 02)2156-2100 | **홈페이지** www.kvca.or.kr |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04
VC DISCOVERY

주요 LP 출자 계획



과학기술인공제회

(단위 : 억 원, 개사)

구 분	출자규모	운용사 수	주요 일정
PE	1,000	4	접수마감 : 9/8 최종선정 : 10월말
VC	820	7	

한국교직원공제회

(단위 : 억 원, 개사)

구 분	출자규모	운용사 수	주요 일정
VC	820	7	접수마감 : 9/24 최종선정 : 11월말

이달의 VC 人 Zoom-In

아주IB투자 정대석 본부장



Q 이번「이달의 VC인 Zoom-In 」코너에 아주IB투자(이하 아주IB) 정대석 본부장님을 모셨습니다. <VC 디스커버리> 독자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주IB투자에서 경영전략 본부장을 맡고 있는 정대석이라고 합니다. 어느덧 늦은 장마가 끝나고 청명한 하늘이 보이며 부쩍 가을 바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모두를 지치게 만들고 있는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지난 여름 건강하고 무탈하게 보내셨기를 바라고요.

저 역시 협회 회원사이자 업계의 구성원으로서 협회에서 발행하는 월간지인 〈VC 디스커버리〉를 사랑하는 독자랍니다. 그간 투자 통계와 법제도 관련 풀이를 일독하며, 출자사업 제안서를 쓴다든지 업계 관련해 스터디를 할 때 큰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쉬어가는 코너로 우리 업계 식구들을 소개해주시는 이런 인터뷰 자리에 초대되어서 무척이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업계에서 오래 근무한 편이라는 점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고, 재미있고 훌륭한 말씀을 들려주

실 만한 다른 분도 많으셔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할지 부끄럽기도 합니다. 모쪼록 어여삐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웃음)

Q 코로나19로 인해서 업무나 신변에 달라진 부분 관련 이야기는 올해 들어 빼놓을 수 없는 주제인데요. 가장 크게 체감하시는 변화가 있으신지요?

아무래도 여러 변화 중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언택트 커뮤니케이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제가 맡고 있는 경영전략본부는 대내외적인 소통 채널로서의 플랫폼을 자처하고 있는데요. 물리적인 공간에서 직접 의견을 나누던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온라인, 유선 등을 통해서도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소통 전략을 강구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출자사업을 일례로 들자면 한날한시에 열리는 사업 공고 설명회에 모두가 참석하고 기관 담당자와 질의응답도 나누는 것이 제안서 작업 방향 수립을 위한 절차였는데요. 이제는 유튜브 발표라든지 온라인에 게시된 자료처럼 누구나 언제든지 접근 가능한 정보를 분석해서 얼마만큼 최대한 유용한 정보를 뽑아내는 지가 중요한 요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IB는 보스톤과 실리콘밸리에 각각 법인 사무소를 두고 있고,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현지와 교류하는 자리를 가져왔습니다. 대개 출자자를 대동해서 투자 현황 점검이나 펀드 리뷰를 하며 직접 현지 업무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제 코로나로 왕래가 막히다 보니 이런 업무들을 비대면으로 백업하기 위해서 페이퍼 작업 등 오히려 공부할 일들이 많아졌으니 머리가 좀 아프기도 합니다. (웃음)

모든 업무 분장이 다 의미가 있고 중요합니다만, 제가 펀드 기획, 결성 등 펀드 제반 업무를 총괄하면서 투자팀과 출자자 사이에서 탄탄한 플랫폼이 되어야만 우리 하우스가 전체적으로 안정적으로 굴러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향후 비대면 트렌드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 아래, 어떻게 하면 보다 선진적인 플랫폼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지 이번 상반기 동안 정말 많은 고민을 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Q 말씀하신대로 VC하우스에게는 펀드 기획 및 관리가 투자 업무와 마찬가지로 비중이 매우 큰 파트인데요. 펀드 운용사로서 이 부분에 있어 아주IB만의 강점이나 철학은 무엇인가요?

최근 몇 년간 벤처투자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벤처캐피탈이 하나의 산업으로, 업계로서 자리 잡을 수 있을 만큼 우리 시장의 사회적인 인지도라든지 정책적인 지원도 커지고 있어요. 그에 따라 출자 규모가 늘어나면서 단일 펀드의 대형화, 민간 LP 풀(pool)의 다양화와 같은 긍정적인 연쇄 작용이 일어나고 있어 너무나 다행이고 반갑습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기술과 늘어가는 스타트업들의 최전방에서 투자 심사를 맡는 파트에서는 사실 출자자의 니즈에 실시간 대응하기란 어렵죠. 그래서 아주IB에서는 경영관리 파트에 무게를 많이 실어주어, 기존 출자자 분들을 비롯해 잠재적인 출자기관들과 꾸준하고 깊이 있는 관계 형성에 집중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사실 거창한 것은 아니라 기본기를 다지는 것이죠. 우리 벤처업계가 워낙 역동적이다 보니,

출자자와 입장을 바꾸어 내 돈이 들어가 있다면 궁금해 할 법한 것들을 선제적으로 고민하고 재빠르게 리포트합니다. 펀드 운용기간에는 투자팀을 대신해 기업 정보나 관련 시장의 이슈들을 분석 정리해 보고요. 펀드 해산시기에는 잔여 자산의 평가, 청산 후 관리라든지 제반 사항들을 바로 바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주IB는 업력이 오래된 VC 중 하나인데요. 과거부터 쌓아 온 많은 백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이슈가 나타났을 때 과거의 유사한 사례를 기반으로 신속하게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몇 십 년 전의 투자심사위원회 보고서는 지금과 다를 것 같죠? 그 때나 지금이나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보는 포인트는 똑같더라고요! (웃음)

그래서 우리만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리스크를 사전에 체크해보고 현장감을 살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약간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투자 문화가 존재합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아주IB의 색깔을 만들었고 출자자분들의 신뢰를 얻어 우리가 롱런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봅니다.

Q 본부장님께서는 올해로 아주IB 입사 20년을 기념하시게 됐는데요. 한 업계와 오래 함께할 수 있게 만드는 힘, VC만의 매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학부에서는 경영학을 전공하고 석사로 재무 분야를 공부했습니다. 대학원의 어떤 교수님 실에서 KTB네트워크의 채용 소식을 접하게 됐는데 그때 처음으로 VC는 꽤 멋진 직업이구나, 언젠가 저런 일을 해야지 막연한 생각만 가졌죠. 졸업 후에는 전공 상 선배나 동료들이 대



개 밟기 마련이었던 증권사 IB 코스로서 첫 직장인의 단추를 끼게 됐고요.

그러다가 2001년 아주IB의 창사 이래 전무후무한 신입 공채가 뜨게 됩니다. 저는 그 때 신입도 아니었지만, 무엇에 홀린 듯이 신입으로 지원하게 됐고 그 이후로 이렇게 20년이란 세월동안 함께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저 외에도 근속년수가 20년 남짓한 1세대 VC라고 부를 수 있는 분들이 아주IB에 더 계시다는 것입니다. (웃음)

90년도 후반에 "VC가 뭔지 모르고 들어왔어요"라는 식의 입사 후기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어떻게 하면 벤처캐피탈리스트가 될 수 있는지 질문도 꽤 많이 받고, 벤처투자가 너무 하고 싶어서 입사하게 됐다는 직원들의 후기를 들을 때마다 기분이 참 묘합니다. 어느새 우리가 이렇게 인기 직종이 되었는지 신기하기도 하고

VC의 매력이 무엇인지 저 또한 한번 되짚어 보게 됩니다.

마침 지난 18년도에 아주IB가 상장을 준비하며 한 30년 가량의 벤처투자 시장 추이와 발전사를 자료로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닷컴버블, 제2벤처붐 등 부침이 있었던 시장 환경에서도 우리 VC업계는 파도를 함께 넘었다는 끈끈한 연대의식, 그리고 안주하지 않고 부지런히 공부하고 움직여야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업의 특성이 우리를 결국 성장시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나를 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 업계의 매력이 아닐까요?

Q 좋은 말씀 많이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한해 그리고 내년을 준비하면서 바라는 점이 있다면 독자분들과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포트폴리오 기업 분들을 비롯해 코로나 여파로 타격을 입고 지금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진심으로 안타깝고 송구합니다만, 거시적인 시장 관점에서 봤을 때는 ICT기반의 언택트 기술이라든지 바이오헬스케어 제품이라든지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이 부상하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VC는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는 주체로, 코로나든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최전방에서 투자하고 시장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렇기에 우리 업계는 코로나 속에서도 위기 대응 능력을 키우며 한 단계 더 성숙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침체된 경기 국면을 탈피하기 위해 시중에 많이 풀려진 자금을 현명하게 운용해서, 앞으로 우리가 좋은 경쟁을 펼쳐 시장에 좋은 실적을 냈으면 합니다.

아주IB는 대표적인 신기술금융사로서 벤처 쪽과는 약간 결이 다른 부분이 존재합니다만, 이제는 신기술금융업권에서도 벤처투자의 역할과 기능을 점점 늘리고자 하는 니즈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창투사를 위시한 VC업계가 융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됐으면 합니다. 물론 협회와 여신금융협회와 같은 기관들이 모여 그 구심점 역할을 해주신다면 너무 좋겠고요.

오늘 인터뷰 자리에서 너무 업무적인 말씀만 많이 드려서 읽으시는 분들이 너무 지루해 하시면 어쩌죠? (웃음) 제가 100세 시대에서 딱 절반 정도를 살았는데요. 과거 한 10년 공부한 걸로 지금까지 20년을 써먹었다면, 이제부터 10년은 새롭게 공부를 해야지 남은 50년간 써먹을 수 있거든요. (웃음) 그래서 무엇에 집중할까 고민하다가 내년부터 딱 두 가지 어학과 골프는 열심히 갈고 닦겠다 다짐했습니다.

아주IB가 글로벌 펀드 규모도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어 업무에도 필요합니다만, 개인적으로도 중국어든 영어든 더 늦기 전에 열심히 해두고 싶은 마음은 항상 굴뚝같아요. 그리고 골프는 이제 타수를 줄이는 데 집중하기 보다는 연습장에 열심히 출석해서 기본기를 다지는 데 신경쓰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사람을 만나는 일이 주 업무고 또 그 시간을 좋아하다 보니, 가벼운 술 한 잔 곁들인 저녁 자리를 못하지 꽤 오래 되어 안타까운데요. (웃음)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무탈하게 지내시는 동안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기를, 그리고 앞으로도 〈VC 디스커버리〉 계속 흥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창업기획자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설립 제한

Q 창업기획자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PEF를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이종건
법무법인 이후 대표변호사

1. 관련규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6998호, 2020. 2. 11., 제정]

제27조(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 ① 창업기획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창업기획자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행위
2.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담보권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그 밖에 창업기획자의 설립목적을 해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창업기획자는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담보권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0934호, 2020. 8. 11., 제정]

제16조(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에 투자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 또는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가. 금융회사등.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은 제외한다.

1) 금융 및 보험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그 외 기타 여신금융업은 제외한다)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금융회사등

2) 벤처투자조합



나.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라. 해당 창업기획자의 특수관계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이하 "계열회사"라 한다)

마. 해당 창업기획자의 주요주주

3. 해당 창업기획자의 주요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및 계열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행위. 다만,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신용공여 행위는 제외한다.
4.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투자하는 행위
5. 창업기획자의 자산으로 타인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거나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
6. 창업기획자의 명의로 제3자를 위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자금을 중개하는 행위
7. 창업기획자가 자신이 투자한 업체로부터 차입 또는 자산 매각 등 투자행위에 수반되는 정상적인 거래관계 외의 거래를 통하여 자금을 받는 행위
8. 투자에 관한 계약서에 적힌 사항 외에 별도의 조건을 설정하여 투자하는 행위
9. 창업기획자의 임직원에 대한 대출로 인하여 창업기획자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10. 그 밖에 창업기획자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간접적 거래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17조(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1])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6조제2호라목에 따른 계열회사의 지분 또는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창업기획자의 주요주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가 지배하는 회사 중 다음 각 목의 해당 법령에서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주요주주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의 계열회사인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는 제외한다)로 규정한 회사의 지분 또는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다. 신기술창업전문회사

2.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해당 창업기획자가 직접 선발하거나 보육한 초기창업자에 대한 경영지배일 것

나. 경영지배 성립일부터 6개월(주식이나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창업기획자의 이익을 명백하게 해칠 우려가 있음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이 되는 날까지 해당 초기창업자의 주식이나 지분을 보유할 것

다. 경영지배 성립일부터 7년(매각을 위한 협의가 늦어지는 등 해당 주식이나 지분을 매각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음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내에 해당 초기창업자의 주식이나 지분을 전부 매각할 것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중소벤처기업부령 제35호, 2020. 8. 12., 제정]

제14조(창업기획자의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기간) 법 제27조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2. 검토의견

- 창업기획자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2호 다.목에 따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 및 운영을 할 수 없음.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행위제한의 예외 규정이 없음
- 창업기획자가 아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26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 제1호 나.목 1)에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1)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나열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 결국 위 해석에 의할 경우 **창업기획자 등록을 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2] **상대적으로 창업기획자 등록을 하지 않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비하여 경영참형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영에 있어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결과가 되어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함(한편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영도 가능한 상황임)

---

1) 경영참여형 사모지합투자기구를 업무집행사원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없음

2) 한편 현재 위 해석에 의할 경우 창업기획자 등록을 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 위 금융회사등 주식 취득 제한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투자조합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결성 자체 제한되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 본질적으로 금융회사 등에 속하는 신기술투자조합의 결성을 업무로 하는바, 애초에 창업기획자 등록이 불가능해지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여 창업기획자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운영 현황

투자 협력

벤처투자 사랑방

8월 벤처투자 사랑방 개최

본 회는 8월 25일 '8월 벤처투자 사랑방'을 개최했다. 코로나 19의 여파로 투자유치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의 애로사항 및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대면 상담방식을 활용했다. 기업들의 질문사항과 IR자료를 사전에 VC 심사역에게 전달하고 온라인 상담을 추진하여 19건의 화상회의가 이뤄졌다. 이를 통해 비스냅 등 중소·벤처기업 19개사가 세마트랜스링크인베스트먼트 등 벤처캐피탈 4개사로부터 기업의 투자유치, 자금조달에 대한 1:1 비대면 상담을 받으며 투자유치 활동을 이어나갔다. 코로나 19의 상황으로 투자유치 관련 프로그램이 많이 중단된 상태에서 사랑방 상담은 언택트 방식을 통해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벤처투자사랑방은 한국엔젤투자협회에서 진행하는 엔젤투자마트와 통합하여 신청을 받고 있다. 벤처투자 사랑방이 중소·벤처기업의 실질적인 자금조달 전략 수립과 사업화 촉진의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벤처투자 로드쇼

8월 벤처투자 로드쇼 릴레이 온라인 투자설명회

본 회는 코로나19로 위축된 벤처투자 분위기 회복을 위해 新의료제품, 비대면(언택트), D.N.A, BIG3, 지역특화기업 등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릴레이 온라인 투자설명회(IR)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8월 12일 D.N.A 기업을 시작으로 8월 13일(충남특화), 8월 18일(BIG3), 8월 27일(광주전남) 등 총 4회를 진행하였으며 혁신기업 18개사와 77명 내외의 VC 투자자가 참여했다. 10월에는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혁신기업의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해외투자기관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자설명회(IR)를 개최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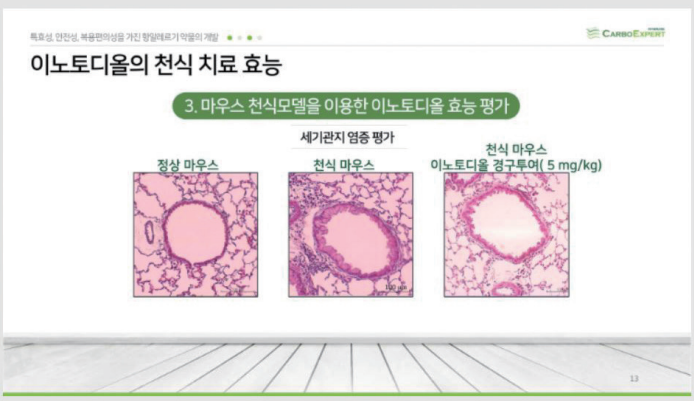


투자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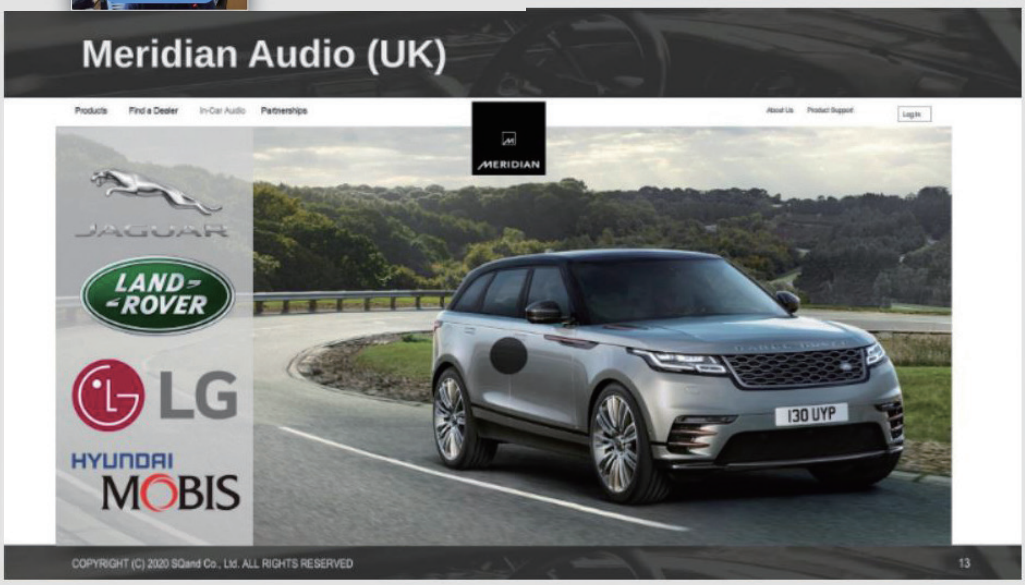
대전·세종 스타트업 벤처투자 사랑방

2020 대전·세종 스타트업 데모데이 파티 개최

본 회는 지난 8월 27일 대전·세종지역 7년 미만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지원을 통한 기업성장 발판 마련 및 지역 내 투자 분위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데모데이를 개최했다. 대전·세종 중소벤처기업청과 대전·세종지역 초기창업지원기관(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수자원공사, 한남대학교, 고려대 세종산학협력단, 대전창업보육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초기기업 8개사와 투자를 희망하는 VC 투자자 50명이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에 접속하여 실시간 투자설명회(IR)를 진행했다. 이번 온라인 투자설명회(IR)를 통해 기업과 투자자 간 만남의 장이 지속되고, 대전·세종지역 내 투자 분위기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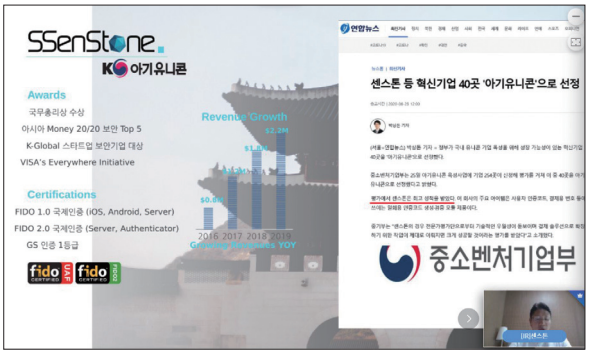
투자 협력

R&D

온라인 IR 및 1:1 투자상담회

본 회는 중소벤처기업부·해양수산부 R&D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8월 12일~14일 3일간 신청을 받은 기업 대상으로 추가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IR과 투자자와의 1:1 상담을 진행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다. 8월 12일에는 8개 기업이 IR을 진행하였으며 13일과 14일에는 기업당 2회의 1:1 투자상담이 이루어졌다. 참여 투자자는 총 29개사 30명으로 참여 기업들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또한 IR 이후 상담에 참여하지 않는 투자자들 중 발표기업에 관심을 가지고 후속미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VC도 여럿이었다. 이번과 같은 행사는 올해 1~2회 정도 추가로 개최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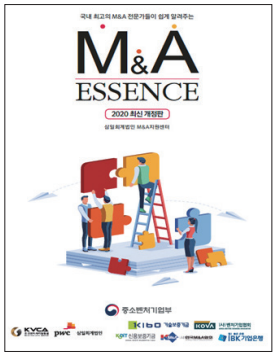
CEO SUMMIT

중소벤처기업부·해양수산부 R&D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슈별 강의를 진행하는 CEO SUMMIT을 8월 21일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하였다. 당초 본 행사는 조찬세미나로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변경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였다. 강의는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이 '포스트 팬데믹, China Insight'라는 주제로 중국진출에 관심을 두고 있는 기업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 위주로 진행하였다. 1시간 가량 진행된 강의를 듣고 기업들은 앞으로의 경영행보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향후 진행되는 강의에도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M&A 지원센터

2020년 M&A에센스 개정판 발간



다양한 M&A 시장 참여자 및 M&A를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M&A 지침서인'M&A 에센스 2020 최신개정판'이 발간됐다.

국내 최대 회계법인이자 중소벤처기업 M&A지원센터인 삼일회계법인이 저자로 참여했으며, M&A 개요 및 절차, 시장현황, 성공전략 및 주요사례, 가치평가방법, 세제, 법률, M&A 유형 및 고려 사항 등 실무에 도움이 되는 내용 위주로,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하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번 책자는 이전 2017년도 버전에서 최신 트렌드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신규 추가 내용을 보강하면서 전면 업데이트됐다. 다양한 M&A 수요자에게 M&A업무 기본서이면서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책자는 유관기관, 법인기업, M&A 자문기관, 투자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또 M&A 거래정보망 홈페이지(https://www.smes.go.kr/mna/)를 통해 다운로드 할 수 있다.

부산·울산·경남 M&A 컨퍼런스 개최

본회는 지난 8월 27일(목), 지방소재 기업을 비롯해 M&A에 관심있는 기업대상으로 M&A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M&A 희망기업과 M&A 전문가 간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고자 「부산·울산·경남 M&A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협회 및 거래소가 공동 주관한 이번 컨퍼런스는 부산에서 오프라인으로 개최를 계획했으나,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인해 온라인 개최로 변경됐다.

본 행사는 부산, 울산, 경남 소재 기업을 중심으로 상장사 및 중소벤처기업, M&A 자문기관, VC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M&A 개요, 성공사례, 법률, 세무전략, 협상 전략 등의 M&A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특강과 M&A 전반에 대한 이해증진 및 정보제공을 위한 M&A 전문가와의 1:1 온라인 상담회가 진행됐다.

각 분야별 M&A전문가와 'M&A거래정보망' 및 'KRX M&A 중개망'에서 활동하고 있는 M&A 자문·전문기관이 특강과 컨설팅에 참여했으며, 1:1 전문가 상담의 경우에는 컨설팅 전문분야와 기업의 상담희망내용을 사전에 매칭하여 맞춤형 상담을 제공할 수 있었다.

코로나19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만큼 기존의 대면 행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앞으로도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해서 M&A 희망 수요자 간의 매칭을 지원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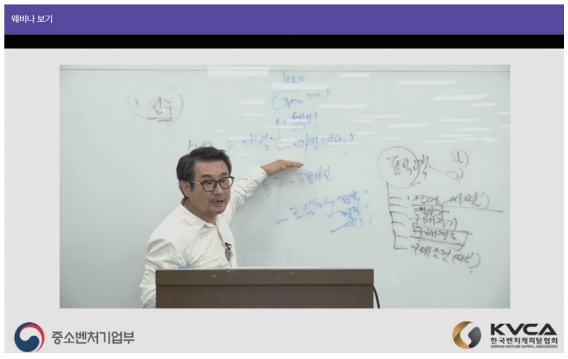
M&A 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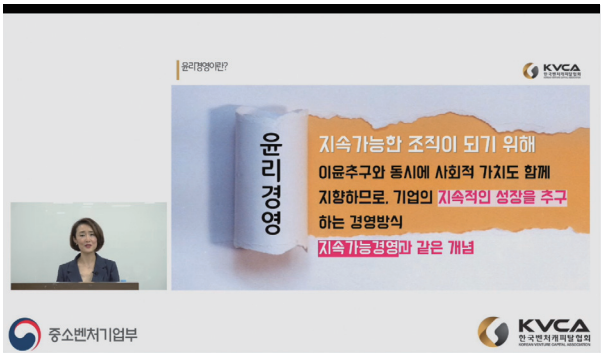
3차 M&A 자문기관 워크숍 개최

협회는 지난 8월 25일, M&A 자문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20년도 3차 'M&A 자문기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웨비나(webinar, 웹+세미나)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사전에 참가 신청을 한 M&A 지원센터, 자문기관, 회계법인, 법무법인, VC 16개사와의 온라인 소통 자리를 마련했다.

워크숍은 하반기 M&A 활성화 지원 사업 일정 안내를 시작으로, 자문기관(삼일회계법인) 보유 M&A 기업물건 소개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과 브랜드 M&A 전략〉, 〈지속가능한 기업의 비밀; 윤리적 의사결정력에서 답을 찾다〉 주제의 특강을 통해 식견을 넓히고, M&A 활성화를 위한 의견수렴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M&A 자문기관 워크숍은 매분기 1회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20년도 4차 워크숍은 12월 중 개최될 예정이다. M&A 자문기관 등록 및 워크숍 참가를 원하는 경우 본회 M&A 지원센터(02-2156-2132, 2124)로 연락하면 된다.





8월 자문기관 M&A 매칭데이 개최

협회는 지난 8월 27일, M&A 거래정보망 등록 우수기업과 M&A 자문기관 간 1:1 상담 자리인 '자문기관 M&A 매칭데이'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자문기관 매칭데이에는 M&A 거래정보망 등록기업 3개사와 자문기관 1개사가 참가했으며, 총 3건의 1:1 매칭상담이 성사됐다.

매도 희망기업으로 전자부품제조 기업, 시스템 통합 및 도소매 기업이 참가했으며,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기업이 매수 희망기업으로 참가하여 활동우수 자문기관과의 상담을 통해 사업소개, M&A 희망조건 등을 협의했다.

자문기관 M&A 매칭데이는 M&A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자문기관과의 상담지원을 통해 M&A 성공률을 제고하고자 월 1회 개최되고 있으며, 다음 자문기관 M&A 매칭데이는 9월 17일 (목)에 개최될 예정으로 참여를 원할 경우 본회 M&A 지원센터(02-2156-2132, 2124)로 연락하면 된다.

KVCA 소식

김형영 신임 상근부회장 취임식 개최

협회의 상근부회장으로 김형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9월 1일부로 취임했다. 김형영 신임 상근부회장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정책과장, 소상공인정책국장과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 소상공인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취임사를 통해 "협회가 회원사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대변할 수 있도록 사무국의 내실을 다지고 나아가 업계와 정부간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형영 상근부회장 주요 약력

△1967년생(전북 임실) △신흥고 졸('85) △고려대 행정학 졸('90) △노스캐롤라이나대 경영학 석사('05)
△36회 행정고시('92)





4차 산업혁명 벤처투자협의회 제7차 회의 개최

협회는 4차 산업혁명 벤처투자협의회 제7차 회의를 8월 19일에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업계 임원을 비롯한 투자심사역 약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VC 동향 정보와 투자활동 사항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서울와이즈재활요양병원 김치원 원장의 〈디지털 헬스케어는 어떻게 비즈니스가 되는가〉 강의를 진행했다.

김치원 원장은 디지털 헬스케어의 여러 사례와 비즈니스가 되기 위한 주요 포인트에 대해 소개했으며, 벤처투자시장에서의 디지털 헬스케어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또한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가 디지털 의료 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해외 사례를 통한 디지털 헬스케어의 비즈니스 전략에 대해 강의했다. 의료시장의 인공지능 도입을 두고 열띤 토론이 진행됐으며, 디지털 의료 기술의 발전을 위해 규제 개혁과 적극적인 벤처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결론지었다.



※ 협의회 가입문의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박정원 대리(02-2156-2133, pjw@kvca.or.kr)

회원사 소식

나우IB캐피탈

나우IB캐피탈은 올 상반기 영업수익(매출액) 64억원, 영업이익 34억 원을 각각 기록했다. 전년 동기대비 매출은 48.8%, 영업이익은 54.5% 각각 증가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25억 원으로 47.1% 늘어났다. 외형성장은 물론 수익성까지 향상됐다.

가장 효자 역할을 한 펀드는 지난해 10월에 결성한 1,000억원 규모의 '나우M&A투자펀드1호'다. 나우IB캐피탈은 이 펀드 운용을 통해 상반기에 10억원의 관리보수를 벌어들였다. 이어 '나우그로쓰캐피탈PEF'에서 9억 2,000만 원이 유입됐다.

현재 나우IB캐피탈의 최대주주는 정지완 솔브레인 회장과 솔브레인이다. 각각 35.5%, 33.3%의 지분율을 갖고 있다. 나우IB캐피탈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관련 화학재료사인 솔브레인을 모회사로 둔 신기술사업금융회사다. 이승원 대표가 전문경영인으로 투자와 운영을 총괄하고 있다. 전체 운용자산(AUM)은 8,650억 원이다.

더웰스인베스트먼트

더웰스인베스트먼트의 설립 이래 첫 벤처펀드 청산을 눈앞에 뒀다. 닥터스헬스케어펀드제1호투자조합을 통해 투자한 포트폴리오의 회수가 마무리된 데 따른 것이다. 닥터스헬스케어제3호투자조합을 통해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투자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바이오·헬스케어 섹터는 전체 투자 비중 가운데 50% 수준을 차지한다. 현재 3호 펀드를 준비 중이며 9월 말 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2017년 닥터헬스케어펀드제1호투자조합과 솔루션캐피탈제2호투자조합과 고유 계정을 통해 카이노스메드에 15억3,000만 원을 투자했다. 투자한지 3년 만에 원금의 6배에 달하는 성적을 거두며 효자 역할을 톡톡히 했다.

지난해 결성한 닥터스헬스케어제2호투자조합은 투자 집행은 모두 마무리됐으며, 이 펀드는 1호펀드 결성 2년 만에 조성돼 규모는 73억 원이다.

마그나인베스트먼트

마그나인베스트먼트가 모빌리티 포트폴리오로 투자 보폭을 확대한다. 지난해 현대자동차 CVC 출신 전문 인력을 영입한 이후 투자 속도가 한층 빨라졌다. 1년도 채 되지 않아 모빌리티 분야에서 총 3건의 투자가 이뤄졌다.

최근 킥고잉을 운영하는 올룰로를 포트폴리오로 편입했으며,. 투자금액은 20억 원으로 지난해에 결성한 임팩트펀드와 관광벤처펀드에서 각각 10억 원씩 조달했다. 이번 올룰로의 투자

라운드에는 현대자동차도 10억 원을 납입하며 투자자로 합류했다.
지난 5월 통과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전동 킥보드가 법률상 자전거로 분류됐다는 점도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의 성장 가능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자전거 전용도로, 한강 공원 등을 주행할 수 있어 시장 확대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다.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의 대표적인 팔로우온 사례는 인공지능(AI) 기반 로보어드바이저 업체 '파운트'다. 파운트는 투자자 개인에게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추천하고 운용해 주는 AI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파운트의 펀드자문 상품은 같은 기간 누적 가입 금액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는 2016년 11월 파운트의 프리(Pre) 시리즈A 투자 라운드에 참여했다. 청년 계정 벤처조합인 '스마일게이트청년창업펀드(약정총액 300억 원)'를 통해 10억 원을 납입했고, 다음 투자는 지난 5월에 이뤄졌으며, '스마일게이트패스파인더펀드(약정총액 1,290억 원)'를 통해 파운트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10억 원어치를 사들였다. 밸류에이션은 첫 투 자 대비 4배 이상으로 껑충 뛰었으며 내년 하반기께 300억 원 규모의 시리즈C 투자를 유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아이디벤처스

아이디벤처스가 글로벌 투자본부를 신설하고 신가형 본부장을 영입했다. 아이디벤처스는 특수분야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 투자를 통해 본격적으로 보폭을 넓힐 계획이다. 글로벌 투자본부는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돕고 글로벌 기업 투자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펀드 청산도 순항 중이며, 지난해 3월 청산한 IP전문펀드 'IBKC-IDV IP투자조합 1호'가 순내부수익률(NET IRR) 23%를 기록했다. 올 7월 청산한 수산전문 펀드인 'IDV-IP 수산전문 투자조합' 역시 순내부수익률(NET IRR)이 12%로 추정되며 일부 성과보수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예비심사를 통과한 압타머사이언스, 에스바이오메딕스, 셀비온 등 포트폴리오 회수도 앞두고 있다.
아이디벤처스는 하반기 신규 펀드를 결성해 투자를 집행할 계획이다. 5G 서비스 수혜가 예상되는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교육, 이커머스뿐 아니라 바이오, 헬스케어까지 중점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기존 주주들을 대상으로 자본을 확충해 인수합병(M&A)펀드와 사모펀드(PE)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

SJ투자파트너스가 운용 중인 '에스제이뉴챌린지펀드'의 투자를 2년여 만에 마무리했다. 토닥, 얌테이블 등 창업에 재도전한 스타트업을 지원하면서 집행률은 85%를 넘겼다.

주목적 투자 대상은 대표가 폐업을 겪은 뒤 다시 창업한 회사로 설정하고 주요 주주로 과거 경영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기업도 포함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토닥과 얌테이블로, 마수걸이 투자처인 토닥에는 세 차례에 걸쳐 총 30억 원을 투입했다. 난청 환자의 청력을 개선하는 인공와우(달팽이관)를 개발한 업체다. 현재는 신경 통증 완화를 겨냥한 의료 제품 연구로 보폭을 넓혔고, 얌테이블 역시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10억 원씩 뉴챌린지펀드 자금을 조달했다. 수산 식품 유통 플랫폼을 운영하는 스타트업으로 HB인베스트먼트, 메가인베스트먼트, GS홈쇼핑 등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누적 150억 원을 유치한 바 있다.

SJ투자파트너스는 올해 하반기에도 창업 전선에 다시 뛰어든 신생기업을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9월에 700억 원 넘는 규모로 결성하는 '에스제이 퍼스트무버 벤처펀드 제2호'를 활용한다. 앞서 퍼스트무버 벤처펀드 제2호는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재기지원 분야 출자금 15억 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엘비인베스트먼트

LB인베스트먼트는 중점 분야를 설정해 투자 밀도를 세밀하게 가져갈 계획이다. 투자 카테고리는 바이오 및 헬스케어, 온라인 소비재 및 컨텐츠, AI, 클라우드 등 3대 분야에 주력하고 있다. LB인베스트먼트는 누적 투자 포트폴리오 기업만 486여 개다. 매년 1,000억 원씩 꾸준한 투자를 이어왔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일조해왔고 그들을 통해 또 우수한 초기 기업에 투자하는 선순환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2,500억 원 이상 규모의 '넥스트 유니콘' 펀드를 11월까지 결성할 예정이며 LB인베스트먼트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펀드다. 대표펀드매니저를 맡은 박기호 대표가 펀드레이징을 주도하고 있다. 성장 지원펀드 앵커 자금의 경우 800억 원을 확보했다. 그동안 성과를 인정받아 국민연금, 총회연금재단 및 기존 LP인 연기금, 금융사 등을 대상으로 펀딩이 진행 중으로 현재 1,800억 원 이상이 확정됐다.

키움인베스트먼트

코로나19 사태 속에 키움인베스트먼트는 연간 1,000억 원 신규 펀드를 결성한다는 목표로 외형을 불리고 있다. 펀드레이징에 적극 나서며 3,000억 원 수준에서 정체됐던 AUM은 지난해 4,000억 원을 넘어선 이후 5,000억 원 돌파를 눈앞에 뒀다.

해외 시장에도 꾸준히 발을 뻗고 있다. 올해 결성한 6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 펀드를 통해 올 3월 베트남 이커머스 기업에 베팅했다. 2016년 본격적으로 해외투자에 뛰어든 키움인베스트먼트는 중국, 인도, 베트남, 싱가포르 등으로 투자 지역을 확대하고 있다.

키움인베스트먼트의 해외 첫 투자 건은 소셜 카지노 게임업체 휴즈다. 2016년과 2017년에 걸쳐 23억 원을 베팅해 지난달까지 총 114억 원 회수를 마무리했다. 키움인베스트먼트의 주요 투자 섹터는 바이오·헬스케어와 ICT로 각각 30% 안팎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키움인베스트먼트의 전신이 한국IT벤처투자였던 만큼 IT 분야에 있어 경쟁력이 클 수밖에 없으며, 2010년대 들어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전문 인력을 영입하면서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티에스인베스트먼트

TS인베스트먼트가 올해 상반기 기업인수목적회사 처분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발기인으로 참여한 스팩 주식 처분으로 인한 수익이 크게 증가했다. 고유 계정 투자 성과도 빛을 발하면서 외형 확대에 성공했다. 지난해 11월 NH스팩11호는 한국비엔씨와 스팩 합병을 완료했고, 엔에이치스팩11호는 TS인베스트먼트가 발기인으로 참여해 28.79%의 지분을 보유했던 법인이다. 합병에 성공한 이후 TS인베스트먼트가 주식을 처분하면서 수익을 창출했으며 이는 고스란히 상반기 당기손익 계정의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처분이익'에 반영됐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처분이익은 16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1억 4,000만 원)에 비해 10배 이상 불어났다. TS인베스트먼트는 인수합병(M&A) 분야의 강점을 살려 다수의 스팩을 운용하고 있다. 중소기업 M&A 네트워크 기반이 탄탄한 만큼 스팩 발기주주로 참여해 속속 성과를 내고 있다.

연수원 소식

※ 교육 과정 개최 연기 안내

제32기, 제33기 벤처캐피탈리스트 전문가과정 및 2020년 추정재무제표작성 & Valuation(2차) 과정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 인해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어 제32기, 제33기 벤처캐피탈리스트 전문가과정 및 2020년 추정재무제표작성 & Valuation(2차) 과정은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차기 벤처캐피탈리스트 전문가 과정은 10월 ~ 11월 중에 온라인 교육을 검토 중이며, 정확한 일정은 연수원 홈페이지(edu.kvca.or.kr)를 통해 추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교육 일정과 2020년 연수원 세부교육 일정(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020년 9월 교육안내

- **교 육 명** 2020년 제4기 신규인력 양성과정
- **운영 형태** 6주 온라인 강의 / 3박 4일 워크숍 / 3개월 VC 인턴십
- **일 자** (온라인 강의) 9월 7일(월) ~ 10월 19일(월)
  (워크숍) 10월 27일(화) ~ 10월 30일(금)
  (VC 인턴십 매칭) 11월 ~ 2021년 1월
- **대 상 자** 벤처캐피탈 업계 및 금융관련업계 종사자, 일반인 등
- **과정 개요** 벤처캐피탈 투자심사 인력 양성 교육

- **교 육 명** 2020년 벤처캐피탈 투자심사 예비인력 양성과정(벤처투자론/고려대)
- **운영 형태** 주 1회 출석
- **일 자** 9월 ~ 12월
- **장 소** 고려대학교 자연계 캠퍼스 창의관 116호
- **대 상 자** 벤처캐피탈 업계로 취업을 희망하는 고려대학교 소속 대학(원)생
- **과정 개요** 벤처캐피탈 이론학습 및 Case Study를 통한 예비 투자심사 인력

2020년 연간 연수원 세부교육 일정(안)

구분	교 육 명	운영형태	일자
1월	성공적 '투자'를 위한 회사법 등 법률 실무과정	4일 출석 (과목 선택과정)	1.14(화)~17(금)
	투자계약서 작성 심화과정	2박 3일	
5월	제30기 벤처캐피탈리스트 전문가 과정	4박 5일	5.18(월)~5.22(금)
		3일 출석	5.27(수)~5.29(금)
6월	벤처캐피탈 바이오 advanced 과정	3일 출석	6.3(수)~6.5(금)
	벤처캐피탈 문화콘텐츠 전문가 과정	3일 출석	6.10(수)~6.12(금)
	벤처캐피탈 플래닝 매니저 초급과정(1차)	2일 출석	6.24(수)~6.25(목)
	추정재무제표작성 & Valuation(1차)	4일 출석	6.30(화)~7.3(금)
7월	제31기 벤처캐피탈리스트 전문가 과정	4박 5일	7.6(월)~7.10(금)
		3일 출석	7.15(수)~7.17(금)
	바이오 투자 전문 인력 양성 과정	4일 출석	7.21(화)~7.24(금)
9월	벤처캐피탈 투자심사 예비인력 양성과정(고려대)	주1회 출석	9월~12월(매주 토)
	제4기 벤처캐피탈 신규인력 양성과정	온라인 교육(6주)	9월~10월
		워크숍(3박 4일)	10월
		VC 인턴십(3개월)	11월~2월
10월	벤처캐피탈리스트 단기체험 과정	3일 출석	10.6(화)~10.8(목)
	제5기 남부권 벤처캐피탈리스트 전문가 과정	5일 출석	10.12(월)~10.16(금)
		온라인	10.21(수)~10.23(금)
	제32기 벤처캐피탈리스트 전문가 과정	5일 온라인	미정
		3일 온라인	미정
11월	벤처투자촉진법 설명회(1차)	1일 출석 or 온라인	11.3(화)
	비상장주식 분석과정	2박 3일	미정
	전문인력 전문성 및 직업윤리 강화 교육	온라인	11월 4주차
	벤처캐피탈 플래닝 매니저 초급과정(2차)	2일 출석	미정
	제33기 벤처캐피탈리스트 전문가 과정	4박 5일	미정
		3일 출석	미정
	벤처투자촉진법 설명회(2차)	1일 출석	미정
12월	PEF 기본과정	2일 출석	미정
	벤처캐피탈 플래닝 매니저 고급과정	2일 출석	미정

※ 코로나 19로 인한 일정 변경 가능

Epilogue

격려와 사랑이 담긴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담습니다.

잠시 멈춰 숨을 고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왠지 들떴던 마음도 가라앉히고,
앞만 보고 달려온 일들도
한 번 되돌아보며 여유를
가져보세요.
〈VC Discovery〉도 분주한
일상 속의 작은 쉼표가
되고 싶습니다.



독자의 소리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서는 투자 관련 규제 완화, 회수시장 활성화 등 시장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시장 조성 및 인프라 마련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지난 1990년부터 〈VC Discovery〉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VC Discovery〉에 바라는 점 등을 기재해 의견을 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위원회에서 뽑히신 독자 의견에는 감사의 의미를 담아 상품권을 지급 예정이며, 보다 유익한 컨텐츠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달의 VC 용어

갈라파고스 경제

일본이 90년대 이후 IT 및 제조업의 기반을 자국내 시장에만 주력하기를 고집한 결과, 세계 시장으로부터 고립되고 있는 현상을 일컫는 표현이다. 갈라파고스는 남아메리카로부터 1,000km 떨어진 적도 주변의 섬 지역으로 이 이름을 따서 갈라파고스화, 또는 갈라파고스 증후군이라는 용어도 있다.

※ 출처 : 리더스 경제





VC Discovery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 매월 좋은 의견을 선정하여
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빌딩 2층

• TEL. (02)2156-2141 • FAX (02)2156-2110

• E-mail newsletter@kvca.or.kr

VC Discovery

KVCA MONTHLY MAGAZINE

KVCA
한국벤처캐피탈협회
KOREAN VENTURE CAPITAL ASSOCIATION